

2022년 1월 15일 “예수님의 비유(26) 티와 들보”(마 7:1-5)

오늘 본문은 기독교 황금률(7:12)의 배경이 되는 말씀으로써 심판하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 심판하지 말라

남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으나 의식하기는 어려운 죄인의 특징입니다.

심판(=분리, 판단(결정)하다)한다는 의미는 타인의 소소한 약점을 우습게 여기고, 우월해 보이려고 단점을 짚어내고, 상대의 잘못을 폭로해서 수치를 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상대를 격하하거나, 이해/배려없이 틀렸다고 결정짓는 것은 안 좋은 일임을 알지만 문제는 이런 심판의 일을 빈번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성을 방치하거나 악화시키면 관계는 악화되고, 영적 생명의 교통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됨을 깨며, 주님 원하시는 진짜 삶(질서와 조화)을 살 수 없고, 주님 뜻을 이루지 못하며, 행복과 기쁨은 더욱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주십니다.

[2]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죄인의 특징은 타인의 눈에 티(단점, 약점)를 잘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더 잘 봅니다. 또한 자기 눈의 들보가 아무리 커도 잘 못 봅니다. 이것 또한 죄인의 특징입니다.

나의 들보는 무엇일까요? 심판과 관련된 말씀 속에서 들보의 정체를 알아보겠습니다.

(1) 롬 2:1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자신도 정죄 받는다고 느끼며, 스스로 자신을 정죄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오래동안 도박하던 사람이 잘못을 깨우치고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아들이 도박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말을 안 듣자 결국 이 사람은 화내고 야단을 칩니다. 이것은 아들을 정죄하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도박을 포함한 인간의 어떤 집착과 중독의 행동들(죄로 보이든 아니든 간에)은 정죄하며 뜯어고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어떤 죄이든지 사랑으로만 해결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정죄함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곧 자신 또한 정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통찰을 통해 우리 눈의 들보는 자기 정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약 4:11-12 "...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율법을 들먹이며 서로 헐뜯는, 심판하는 태도를 버릴 것을 야고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행동은 율법으로부터 정죄 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율법을 통해 이웃을 정죄하는 것은 말씀보다 자신을 더 우위에 놓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들보의 정체는 자기 정죄와 교만입니다. 우리 스스로 잘 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의 자유하며 겸손한 삶을 통해 얻으신 태도적 가치를 배우는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 그분 생명은 창조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빛납니다.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셨습니다(십자가).

겸손하심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길(가정, 직장, 모든 관계)에서 그분 뜻에 일치시키는 순복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유와 겸손 안에서 눈의 들보는 제거됩니다.

5 절.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 줄 수 있을 것이다'

들보를 빼내면 심판할 자격이 생긴다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들보를 보고 제거할 때 참으로 타인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눈의 들보가 벗겨져야 가족과 타인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풍성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본문에서 말한 남의 눈의 티와 내 눈의 들보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2. 내 눈의 들보를 없애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왜 중요합니까?